

사회적 배척이 친족에 대한 자기 유용성 지각에 미치는 효과

권 기준 이 홍 표*
대구사이버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진화론적 측면에서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보고 사회적 배척이 유전적 유사성이 있는 친족의 생존과 번식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 유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사회적 배척은 고립, 모욕, 괴롭힘 배척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소속감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협동, 생존과 번식의 조건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고립 배척이 모욕이나 괴롭힘 배척에 비해 자기 유용성의 지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배척은 유전적 친족에 대한 자기 유용성을 손상시키는 요인이었다. 특히 고립 배척이 모욕이나 괴롭힘 배척에 비해 친족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 유용성의 손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부가적으로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을 구성하여 우울과 자아 존중감을 경유한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우울과 자아 존중감의 간접적인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과 시사점 및 제한점을 진화심리학적,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논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배척, 자기 유용성, 우울정서, 자아존중감

최근 사회적 배척(social exclusion) 혹은 거절(rejection) 연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수용 받는 경험은 행복, 만족감, 침착함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반면(Baumeister & Leary, 1995) 배척을 당하거나 소속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안과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가 유발된다(Baumeister & Tice, 1993). 또한 자기패배적 행동(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2)과 공격성이 증가하며(Twenge, Baumeister, & Tice, 2001) 자아 존중감이 감소한다(Leary, Tamber, Terdal, & Downs, 1995).

이러한 사회적 배척 경험은 성인뿐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 적응과 발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심각하다. 아동기에 또래들에게 거절이나 배척을 당한 아이들은 사회적 유능감이 낮고(Rubin & Mills, 1988),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며(Dodge, Lansford, Burks, Bates, Pettit, Fontaine, & Price, 2003), 성장한 후에도 학업 실패나 중도 탈락, 비행, 정신병리 등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적응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Kupersmidt, Coie, & Dudge, 1990).

* 교신저자 : 이홍표,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Fax : 053-850-4019.
E-mail : youbefree@dcu.ac.kr

사회적 배척이나 거절이 부적응적 문제들을 유발하는 이유는 Maslow(1968)가 말한 바와 같이 생리적 욕구를 제외하고 안전 및 소속감의 욕구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결핍동기이기 때문이며,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사회 속에서 자기를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Baumeister와 Leary(1995) 역시 사회적 수용의 욕구가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라고 강조하였다.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인간성의 깊은 진화적 역사에 뿌리박고 있는데 인간은 50~200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에서 진화하였다(Dunbar, 1993). 소규모의 집단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적응 단위로(Barchas, 1986)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원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며, 함께 음식을 공유하고, 짝을 제공하며, 자손을 양육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런 소집단의 조건에서 사회적 유대는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요인일 수 밖에 없는데(Barchas, 1986; Dunbar, 1993) 왜냐하면 무리에 수용되는 개체는 집단의 도움을 통해 자기 보호와 생존은 물론 짝짓기(mating)나 번식(reproduction)에 필요한 자원 획득 및 지위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무리에서 배척당하면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애착 발달에 침해를 받을 뿐 아니라 협동 상대에서 배제 당함으로써 생존과 번식 경쟁에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이런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배척은 개체의 진화적 적합도(evolutionary fitness)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되며,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속한 무리의 배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교정하거나 사회적 유대를 추구하도록 진화하였을 것이다.

소집단 중에서도 가족(보통 가족은 소집단 안에 작은 단위로 존재한다)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전승하며 한 개인의 발달, 생존과 번식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런 가족의 유전적, 발달적, 진화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진화생물학자 Hamilton(1964)은 유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자기 희생과 이타적인 행동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신이 번식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혹은 성공하지 못할 경우) 같은 유전자를 공유한 친족들이 번식에 성공하도록 이타적인 행위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런 이타적 행동을 통해 한 개체의 적응도 뿐 아니라 친족 전체의 적응도가 증진되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 적합도(inclusive fitness)라고 명명하였다(Hamilton, 1964). 포괄적 적합도 이론에 근거하여 de Catanzaro(1995)는 자살의 한 변수에 친족들에 대한 자신의 유용성(self-utility)이 포함된다고 가정하였다. 즉, 자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정도(burden-someness toward kinship)가 크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이 없어졌을 때 친족이 더 큰 번식상의 이득을 얻게 된다고 가정하여 자살 사고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실제로 이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검증한 다른 연구에서도 가족들에 대해 자신이 기여하는 바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우울과 무력감, 자살사고가 높았다(Brown, Dalhen, & Mills, 1999).

이러한 포괄적 적합도나 자살에 대한 진화 이론을 심리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배척에 적용해 보면 사회적 수용이나 배척으로 인해 자신이 가족이나 친족에 유용한 존재인가라는 지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은 유전자를 공유하지만 짝짓기의 대상은 아니며, 대부분의 사회에서 결혼은 비친족 집단과의 즉위혼으로, 다른 가족이나 무리와 배우자를 교환해야 한다(Levi-Strauss, 1958), 동성의 경쟁자와 경쟁하여 짝짓기와 출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친족 집단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동이 필수적인 것이다. 물론 짝짓기 경쟁에 필요한 일차적인 자원이나 지위는 가족 내에서 전달되지만 가족 내에서 분배 가능한 자원은 대개 한정되어 있다. 또한 남녀 모두 친절하고 수용적이며 성실한 이성을 선호하는데(Buss & Barnes, 1986; Swami, Miller, Furnham, Penke, & Tovee, 2008) 배우자 선호의 중요한 한 지표인 이러한 신뢰성이나 이타성의 지표는 가족 내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배우자 획득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로 비친족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거나 적어도 자원과 지위 획득의 가능성이 높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로는 유능하거나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을 착취하거나 이용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이홍표, 한성열, 2006) 무리 내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우호적이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이나 신뢰는 비친족 집단에서의 개

체 자신의 활동과 집단내 교류를 통해 발달, 획득, 인지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개체가 비친족 집단에 수용 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면 자신 및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필요하며 유용한 존재라는 자기 유용성 (self utility)이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무리의 인정과 호혜적 관계를 통해 결혼과 번식에 필요한 자원과 지위 및 좋은 평판을 획득할 수 있고, 배우자 교환(자신도 교환상대에 포함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번식에 성공할 수도 있으며, 유전자를 공유한 다른 친족들의 결혼과 번식에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사회적 배척을 당한다면 어떻게? 만일 소집단에서 회복 불가능한 배척을 당한다면 자원과 도움을 주고받거나 공유하는 협동 상대에서 배제당하는 셈이 되고, 자존감이 저하될 것이며(Leary et al, 1995), 사회적 관계나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고, 무리에 나쁜 평판이 둘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지위나 자원, 신뢰의 획득에 제한을 받게 되며 배우자 교환의 대상에서도 배제될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는 생존과 번식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가해자들이 자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특정 대상을 무리에서 공모하여 탈락시켜 가는 과정, 특히 지위나 자원 획득 및 짝짓기의 경쟁 상대를 선별적으로 탈락시켜 가는 과정이 배척에 내재해 있을 수 있다. 이런 순환작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배척의 피해자는 자신을 무리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가치 없고 유용하지 못한 존재로 지각할 것이며, 짝짓기와 번식에 실패할 것이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친족들에서도 유용하고 환영받지 못할 존재라고 스스로를 격하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이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기여하는 자기 유용성 지각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런데 배척의 유형은 다양하다. Baumeister와 Leary(1995)는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거나 소외당하는 것을 배척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조성숙과 최훈석(2007)의 연구를 제외하고 또래 간에 이루어지는 왕따나 직접적 괴롭힘, 폭력 등의 집단적, 물리적 배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

있고 Baumeister와 Leary(1995)가 주장한 엄밀하고 좁은 의미에서의 배척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사실 배척, 거절, 따돌림(victimization, mobbing), 괴롭힘(bullying), 왕따 등의 용어는 명확한 정의 없이 혼용되었고 그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다. 사회적 배척을 넓게 정의하고 이러한 관련 연구들을 포괄한다면 배척에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적, 물리적인 폭력이나 공격성이 주류를 이룬 배척(Olweus, 1984; 이해경, 김혜원, 2001)이 있을 수 있고 집단적 소외(구분용, 1997)가 추가 되는 배척이 있을 수 있다. 혹은 간접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의 행사나 모욕과 창피가 배척의 주 유형이 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기존 연구에서도 Olweus(1993)의 범주에 근거하여 소외형, 신체형, 언어형(최은숙, 2000)이나 직접적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이춘재, 곽금주, 2000)으로 배척을 구분한 선행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대부분 직접적인 괴롭힘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측정도구에서 배척 유형이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나아가 각각의 배척 유형이 어떻게 정서나 행동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 배척 유형을 명료하게 구분한 후 각각의 배척 유형에 따른 자기 유용성 지각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어떤 배척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배척 유형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에는 폭력형, 언어적 조롱, 장난형, 소외형 따돌림 등이 많으며 이 중 소외형 따돌림이 가장 많았다(권순달, 1999; 전영기; 2000). 아동의 경우 남자아동은 직접적인 괴롭힘이 많은 반면 여자아동은 언어적 괴롭힘과 인간관계의 따돌림이 많았다(Crick & Bigbee, 1998; Paquette & Underwood, 1999). 특히 성인들의 경우에는 아동이나 청소년과 달리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이나 무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태도 공격, 비판, 지나친 업무 감시 등 심리적이고 은밀하며 간접적인 형태가 대부분이었다(Einarsen, 2000; Keashley, 1998; O'Moore, 2000; 곽금주, 2005; 박경규, 2006; 박경규, 최향석, 김호연, 2006). 예를 들어 신동엽과 박오훈(2000)의 연구를 보면 동료들이 말이나 상대를 하지

않는 경우(66.9%)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물리적인 공격성은 거의 없었다. 따돌림을 시키는 방법 역시 말을 걸지 않거나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69.5%)가 가장 많았다. 즉, 성인의 경우에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무리에서 배제하는 형태의 간접적이며 은밀한 의미에서의 배척이 많았다. 이런 점에서 배척을 크게 구분한다면 신체적/물리적 공격성을 수반하는 배척, 언어적인 모욕을 수반하는 배척, 피해를 상대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따돌리고 배제하는 고립형 배척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배척이 자기 유용성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까? 만일 사회적 배척이 개인의 적합도 지각에 손상을 입힌다면 물리적 공격성이나 괴롭힘, 언어적 모욕 등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배척보다 대인관계에서 순수한 고립이 자기 유용성의 손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클 것이다. 물론 물리적, 신체적 공격 역시 개인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장애와 같이 심각한 정신장애를 유발한다(Hawker & Boulton, 2000; Mikkelsen & Einarsen, 2002).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 성인에게서는 이러한 물리적, 신체적 공격이 흔치 않으며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또한 가해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외부로 원인을 귀인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로 귀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에 간접적, 언어적, 심리적인 형태의 배척은 은밀하게, 집단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대상을 파악하거나 대응하기가 힘들고, 그 원인을 외부에 귀인하기도 어려우며 자신의 문제로 귀인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직접적인 배척이 대개 특정 대상 혹은 소수의 대상에 한정되어 있다면 고립은 다수의 성원들에 의해 은밀히 행사되거나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교류나 상호작용의 의지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유사하게 Peplau와 Perman(1982)의 연구에서도 공격적인 배척을 당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고독감이나 우울 정도가 다르지 않았으나 수동적, 간접적인 배척을 당한 집단은 고독감이 높았고 또래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소집단에서 생활한 선조들의 특성상,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내의 대다수 사람들과 그 이유도 명확히 알

지 못한 채 사회적 상호작용을 장기간 상실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집단내의 일부 몇 명에게 폭력, 모욕을 당하고 상호작용을 못한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고민이고 손실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언어적,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배척을 당한 경우보다 고립을 당한 경우가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자기 유용성에 더 깊은 손상을 입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자존감이라는 매개 변인을 설정하였다. 이는 사회적 배척이 직접적으로 친족들에 대한 자기 유용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지만 우울감을 유발하고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적 상태에 영향을 미쳐, 이로 인해 자기 유용성이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배척이 일차적으로 부정적 정서나 자기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정서와 자기 변인이 자기 유용성을 저하시키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울감은 스트레스와 자살 사고(박병금, 2007; 홍영수, 전선영, 2005) 결혼 적응도(이명옥, 하정희, 2007)사이에서 자살사고를 유발하고 결혼생활의 적응도를 저하시키는 매개 변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슬픔이나 괴로움과 같은 정서는 흔히 부정적 사건(선행 변인)으로 인해 유발되지만 이후에는 주변의 관심과 위로를 얻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만든다는 적응적인 행위 경향성을 유발한다(Greenberg & Paivio, 1997). 부정 정서가 선행 사건과 결과(사고, 행동 등)를 연계하는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Twenge, Cataness와 Baumeister(2002)는 정서적 고통(부정적 정서)이 사회적 배척을 매개하여 자기패배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이(Rice, Ashy, & Slaney, 1998; Roberts, Gotlib, & Kassel, 1996; Wilkinson, 2004) 심리적 특성과 행동 간의 매개 변인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자기 지각은 스트레스와 우울(Tram & Cole, 2000), 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도구성 및 우울 사이에서 간접적인 매개 역할을 한다(Herman & Betz, 2004; Lu & Wu, 1998). 국내 연구에서도 남성의 성역할 갈등 및 도구성과 우울(김지현, 최희철, 2007),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김미례, 2007), 의사소통과 부부적응(모의회, 김재환, 2002)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배척이나 거절에서 정서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들에서는(Twenge, Cataness와 Baumeister, 2002; Williams, Cheung, & Choi, 2000) 정서적 고통의 매개 효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의 실험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사용된 기분 평가 절차가 지나치게 단순하였고(기분을 한 문항으로만 평가하게 하거나 미래에 혼자됨을 예측하게 함), 사회적 배척의 강도가 약하였으며, 짧은 단기간의 실험에 의지한 문제점들이 있다. 또한 여러 기존 연구에서 매개 효과가 지지되고 있는 자아 존중감과 같이 중요한 자기 변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따돌림, 괴롭힘 등의 다른 이름으로 상당한 연구들(김혜원, 이해경, 2000; 이춘재, 박금주, 2000; 정선진, 이은혜, 고윤주, 김영신, 2001)이 이루어졌지만 조성숙과 최훈석(2007)의 연구를 제외하고 사회적 배척과 후속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혀내고자 한 연구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수적으로 우울 및 자아 존중감 변인을 포함하여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배척과 자기 유용성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순수한 의미에서의 관계 배척이 자기 유용성에 더욱 손상을 입힐 것 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사회적 배척을 엄밀하고 좁은 의미에서의 배척(무리 내에서의 고립), 언어적/간접적인 배척, 직접적이거나 신체적인 형태의 배척 등의 세 가지로 크게 범주화한 후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울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과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배척은 친족들에 대한 자기 유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사회적 배척은 우울을 유발하고 자아존중감을 낮출 것이다.
- 2) 타인을 소집단에서 고립시키는 사회적 배척이 직접적/폭력적이거나 언어적인 형태의 배척보다 친족들에 대한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클 것이다.
- 3) 사회적 배척이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

및 우울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참여자

연구대상은 서울과 대전 및 충청북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249명이었다. 평균연령은 22.46세 (SD=3.96), 연령범위는 만 18세~39세였으며 남성 132명(53%), 여성 117명(47%)이었다.

측정도구

사회적 배척

사회적 배척은 신체적, 물리적 괴롭힘과 언어적 모욕 등 직접적 형태의 배척을 포함하고 있는 이춘재와 박금주(2000)가 타당화한 또래 따돌림 척도(Peer Victimization Scale; Callaghan & Joseph, 1995) 6문항 및 Olweus(1993)의 가해/피해 질문지(Bully/Victim Questionnaire) 6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순수한 고립을 반영하는 배척 문항에는 기존의 척도 문항을 수정하거나 제작된 8문항을 포함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총 20문항을 경험적 요인 분석하여 세 가지 유형의 배척을 구분한 후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세가지 유형의 배척으로 구성된 15 문항이 선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3이었다.

자기평가 우울척도

Zung(1965)의 자기평가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우울증상을 자가 평가하는 척도로 우울 정서, 수면장애, 만성 피로, 주의집중력과 사고력의 저하, 정신운동 지연, 식욕 및 성욕 감소, 자살 의도 등 정서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SDS는 20개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훈(1985)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4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82였다.

로젠버그 자아존중감척도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1965)는 11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5, 내적 일치도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마지막 문항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문항 총점 상관이 낮아(-.05) 이를 제외한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10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3이었다.

자기 유용성

본 연구에서는 유전적 유사성이 있는 소집단(가족, 친족)의 번성에 짐이 되지 않고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의 자기 인식을 평가하는 친족들에 대한 자기 유용성 척도 10문항을 제작,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한 문항이 탈락하고 총 9문항이 선택되었으며 내적 일치도는 .92이었다.

절차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심리학자 1명과 정신과 의사 1명이 함께 사회적 배척의 세 가지 범주를 규정한 다음 기존에 개발된 척도들의 내용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검토 결과, 기존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된 또래 따돌림 척도(Peer Victimization Scale; Callaghan & Joseph, 1995)와 Olweus(1993)의 가해/피해 질문지(Bully/Victim Questionnaire)는 신체적, 물리적 괴롭힘이나 언어적 모욕 등 본 연구에서 가정한 두 가지 요인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두 척도에서 각각 6문항을 선별하여 포함하였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를 반영하는 문항들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성인에게 부적합하였는 바, 먼저 가해/피해 질문지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적 관계에서 따돌리거나 소외 당하는 경험을 평가하는 문항 4개를 성인에 적합한 용어로 수정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사건을 평가하는 생활조사 질문지(이영호, 1993;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2000)에서 성인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경험하는 사회적 배척 사건 4문항을 선별, 총 20문항을 구성하였다. 추후 심리학과 대학원생 3명에게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후, 내적 일치도와 경험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여 세 가지 요인이 도출되

는지 검토하였다.

친족들에 대한 자기 유용성 척도 역시 심리학자 1명과 정신과 의사 1명이 함께 유전적 유사성의 범위와 시점을 결정하고 내용 타당도를 검증,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 유용성이란 Hamilton(1964)의 포괄적 적합도 이론에 근거하여 유전자를 함께 공유한 인물들의 생존, 번식, 번성에 자신이 얼마나 짐이 되는가 혹은 기여할 수 있는가의 자기 지각을 의미한다. 유전적 유사성의 범위는 배우자와 부모, (장래의) 자녀를 포함한 일차 가족과 방계 친척으로 한정하였다. 이 때 배우자는 유전적 유사성을 공유하지 않지만 유전자를 공유한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므로 자기 유용성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성인의 경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성인들이 많으므로 기여나 짐이 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시점에는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괄하였다. 척도의 내용에는 자신이 자녀를 낳고 잘 키우며 좋은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되거나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되지 못할 가능성 등 짝짓기와 출산, 기여의 정도 등을 포함하였다. 이런 과정을 걸쳐 자기 유용성을 반영하는 10문항을 선별, 제작하였고 대학원생 3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게 한 후, 내적 일치도와 경험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여 구성개념이 도출되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친족들에 대한 자기 유용성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 좋은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됨, 가족 및 친척들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을 평가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자신의 신체적, 성적 매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짝짓기 대상인 이성의 호감과 긍정적 매력을 얻을 가능성과 정적 상관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매력이 없거나 호감을 얻지 못한다면 결혼이나 결혼 및 출산을 통한 친족들에 대한 유전적 기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의 경우에는 연애, 결혼 및 출산의 가능성, 연애나 결혼생활을 장기적으로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지각과 정적 상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자신의 신체적, 성적 매력에 대한 지각, 이성 관계에서의 호감, 짝짓기나 결혼 가능성 지각, 미래에 좋은 배우자가 되고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할 가능성 지각 등을 평가하는 지각된 신체적 매력척도(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scale; Goetz, Shackelford, Weekes- Shackelford,

Euler, Hoier, Schmit, & LaMunyon, 2005; 이홍표, 김수지, 김교현, 2008), 자기 지각된 교제 성공 척도 (self-perceived mating success scale: Landolt, Lalumiere, & Quinsey, 1995; 이홍표, 김수지, 김교현, 2008), 미래의 지각된 이성관계 및 생식 성공 척도(이홍표, 김수지, 김교현, 2008)와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수렴 타당도를 살펴 보았다.

측정 도구를 구성한 후 서울과 대전 및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반응 결손이나 무선적 반응을 보인 일부 참여자를 제외하고 249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절차에서는 먼저 사회적 배척 척도에 내적 일치도 분석과 공통 요인분석, 주축분해법, 직교 회전을 실시하여 세 가지 범주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 때 요인 부하량이 .3 이상, 공통분(communality) .3 이상, 문항-총점 상관이 .3 이상을 기준으로 문항을 선택하였으며 두 문항간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 이하인 문항은 제외하였다. 또한 공통 요인분석, 주축분해, 사각 회전을 통해 자기 유용성 척도의 타당도와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았으며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다음에는 부분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배척의 하위유형이 우울, 자이존중감 및 자기유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고립 배척, 모욕 배척, 괴롭힘 배척의 순으로 변인을 투입하였다. 아울러 공변량 구조 방정식의 구조 모형(structure model)을 통해 사회적 배척이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효과에서 자이존중감과 우울이 자기 유용성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모수추정 방식은 최대 우도법을 따랐으며,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을 구성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15.0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사회적 배척과 자기 유용성의 타당도 검증

먼저 사회적 배척에 포함된 3개 척도의 20문항을 요인분석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하위 요인들이 구성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자료의 Bartlett test of Sphericity

는 1483.62($df=105$, $p<.001$)로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었고 MSA(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908로 자료의 표본 적합도가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요인 분석의 문항 선택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 15문항이 선택되었으며 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이 3개 도출되었고 Scree test에서도 3개 요인이 적절함이 시사되었다.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의 7문항에는 때리거나 못 살게 굴고 맞거나 발로 차이는 등의 신체적인 폭력, 욕을 하거나 놀리는 등의 노골적이면서도 신체적, 언어적 폭력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집적대거나 괴롭히고 위협을 당하는 등의 직접적인 위협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볼 때 요인 1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식의 사회적 배척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또한 요인 1에는 가해/피해 척도와 또래 따돌림 척도의 문항들이 혼재되어 있고 척도 전체에서 탈락한 문항들 역시 문항 내용이 유사하였던 이 두 가지 척도의 문항들로, 예측한

대로 두 척도가 측정하는 내용 타당도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요인 1은 이러한 기존 척도의 이름과 문항들이 나타내는 내용을 참조하여 “괴롭힘 배척”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의 4문항에서는 의견을 무시당하거나 모욕과 창피를 당하는 것으로, 물리적이지는 않지만 직접적이면서도 언어적인 방식의 배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그러나 요인 1보다는 강도가 약하며 개인적인 약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상황적 변인이 많은), “모욕 배척”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 3의 4문항에는 요인 1, 2와 달리 친구 사이에 끼워주지 않거나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뒤에서 쏘곤거리는 등의 간접적이고 비신체적이며 관계에서 따돌리는 방식의 배척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요인 3은 따돌림과 고립을 지향하는 배척으로, 엄밀하고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배척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되어 “고립 배척”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세 가지 요인은 문항의 내용은 달랐으나 실제로는 Olweus(1993)가 세 가지로 구분하였던 신체형, 언어형, 소외형 따돌림과 개념적으로는 매우 유사하였다. 이상의 3요인 구조가 전체 설명 변량의 67.99%를 설명하였으며 공통분은 모두 .4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요인 부하량 역시 .4 이상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3이었다. 다음으로 자기 유용성 척도의 타당도를

표 1. 사회적 배척의 주축요인분석 결과(패턴 행렬)와 내적 일치도

문 항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분
나를 때리거나 못살게 굴었다(p)	.880			.435
나에게 험한 욕을 하였다(p)	.868			.680
욕을 듣거나 심하게 놀림을 당하였다(b)	.837			.869
맞거나 발로 차이고 위협을 당하였다(b)	.763			.650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다(p)	.749			.817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였다(p)	.748			.738
사람들이 나에게 짐적거렸다(p)	.546			.667
남들이 내 의견을 무시하였다		.938		.594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였다		.719		.885
남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		.699		.667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였다		.641		.420
친구나 동료들이 끼워주지 않았다			.772	.755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렸다			.681	.648
뒷말을 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트렸다			.617	.600
뒤에서 나에 대해 쭈근거리는 말을 자주 들었다			.514	.683
누적 설명변량 67.99%	53.80	9.24	4.95	
내적 일치도		.93		

※ 요인 부하량 .4 이하는 제외, p=또래따돌림척도, b=가해/피해 척도.

검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유전적 유사성이 낮은 “사회”를 포함한 1문항(나는 이 사회에 공헌하는 존재가 되지 못할 것 같다)의 요인 부하량이 .087로 매우 낮았다. 이를 제외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 구조가 도출되었으며 이 때 1요인은 “가족, 친척에 대한 기여, 자녀 역할” 등 주로 확대가족에 대한 자기유용성을 중심으로 한 6문항이 포함되었으며 2요인에는 “배우자, 부모 역할” 등 좁은 의미의 핵가족에 대한 자기유용성을 중심으로 한 3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1요인에 속하였던 “나는 좋은 아들(딸)이 되지 못할 것 같다”, “가족 외의 다른 친척들에게 짐이 될 것 같다”는 두 문항은 1요인에 .598, .569의 부하량을 보였지만 2요인에도 .443, .452의 부하량을 보여 요인 간의 차이가 명료하지 않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를 세분하지 않고 배우자 및 유전적 유사성이 있는 부모, 자녀, 친척 및 일반적인 가족 범위를 포괄하여 친족에 대한 자기유용성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자기 유용성 척도를 1요인으로 가정한 후 다시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Bartlett test of Sphericity는 1633.76($d \neq 36$, $p < .001$)로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었고 MSA(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891로 자료의 표본 적합도가 요인 분석에 적합하였다. 최종적으로 척도의 9문항이 전체 변량의 57.09%를 설명하였다. 공통분은 .4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요인 부하량도 .4 이상으로 적절하였다.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2였다.

또한 자기 유용성 척도와 지각된 신체적 매력 척도, 자기 지각된 교제 성공 척도, 미래의 이성관계 및 생식 성공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았다. 친족들에 대한 자기유용성은 자신이 지각된 신체적 매력과는 .27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기 지각된 교제 성공 척도에서 반영하는 현재 이성관계에서 호감과 매력을 얻고, 나

표 2. 자기 유용성의 주축 요인분석 결과와 내적 일치

문 항	요인1	공통분
나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809	.654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 것 같다	.799	.639
나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것 같다	.766	.586
나는 좋은 아들(딸)이 되지 못할 것 같다	.653	.567
나는 자식을 (남아도) 잘 키우지 못할 것 같다	.745	.555
나는 친척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739	.547
가족외의 다른 친척들에게 짐이 될 것 같다	.738	.544
가족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할 것 같다	.736	.541
나는 좋은 배우자(남편,아내)가 되지 못할 것 같다	.710	.505
설명변량	57.09	
내적 일치도	.92	

표 3. 자기 유용성과 지각된 신체적 매력, 자기-지각된 교제 성공, 지각된 이성관계 및 생식 성공 척도와의 상관계수

	자기 유용성	지각된 신체적 매력	자기-지각된 교제성공	지각된 이성관계 및 생식성공
자기 유용성	1.00			
지각된 신체적 매력	.27**	1.00		
자기-지각된 교제성공	.32**	.72**	1.00	
미래의 지각된 이성 관계 및 생식 성공	.61**	.49**	.51**	1.00

아가 연애나 교제를 하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지각과는 .32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특히 미래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잘 양육하며,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지각을 반영하는 지각된 이성관계 및 생식 성공 정도와는 .61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배척이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우울(남: $M=42.25(SD=7.51)$, 여: $M=44.02(SD=6.69)$, $F(1,248)=1.71$, ns), 자아존중감(남: $M=42.25(SD=7.51)$, 여: $M=44.02(SD=6.69)$, $F(1,248)=1.71$, ns) 및 지각된 자기 유용성(남: $M=52.50(SD=10.13)$, 여: $M=51.41(SD=8.99)$, $F(1,248)=.78$, ns)에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또한 사회적 배척의 성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욕 배척(남: $M=$

$11.63(SD=5.29)$, 여: $M=11.56(SD=5.77)$, $F(1, 248)=.01$, ns), 고립 배척(남: $M=8.43(SD=5.10)$, 여: $M=7.21(SD=3.84)$, $F(1,248)=2.04$, ns)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괴롭힘 배척(남: $M=14.69(SD=8.69)$, 여: $M=11.90(SD=6.71)$, $F(1, 248)=3.63$, $p=.059$)에서는 .1 수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직접적인 폭력을 많이 경험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표 4와 같았다. 표 4에서 보면 사회적 배척은 우울과 .41의 정적 상관, 자아존중감과 -.39의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기 유용성과는 -.36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하위 요인별로 보면 괴롭힘 배척은 우울과 .32의 정적 상관, 자아존중감과는 -.37의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 유용성과는 -.29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모욕 배척은 우울과 .43의 정적 상관, 자아존중감과 -.37의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 유용성과는 -.26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4. 변인간의 상관계수

	사회적 배척	괴롭힘 배척	모욕 배척	고립 배척	우울	자아존중	자기유용
사회적 배척	1.00						
괴롭힘 배척	.66**	1.00					
모욕 배척	.93**	.56**	1.00				
고립 배척	.89**	.66**	.56**	1.00			
우울(SDS)	.41**	.32**	.43**	.31**	1.00		
자아존중	-.39**	-.37**	-.37**	-.33**	-.59**	1.00	
자기유용	-.36**	-.29**	-.26**	-.41**	-.34**	.36**	.00

표 5. 사회적 배척이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우울			자아존중감		
	ΔR^2	<i>F Change</i>	<i>Sig</i>	ΔR^2	<i>F Change</i>	<i>Sig</i>
고립 배척	.092	11.26	.001**	.111	14.05	.000***
모욕 배척	.095	12.84	.001**	.038	4.93	.028*
괴롭힘 배척	.008	1.03	.31ns	.024	3.20	.076ns

Partial=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 $p < .05$, ** $p < .01$, *** $p < .001$

다. 고립 배척 역시 우울과 .31의 정적 상관, 자아존중감과 -.33의 부적 상관, 그리고 자기 유용성과는 .41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기 유용성은 우울 및 자아존중감과 -.34, .36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세 가지 배척이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표 5와 같았다. 우울에 대해서는 고립 배척이 9.2%를 설명하였으며 $F Change = 11.26$, $p < .01$ 모욕 배척 역시 9.5%를 설명하여 유의하였다($F Change = 12.84$, $p < .01$). 그러나 괴롭힘 배척의 영향력은 0.8%로 유의하지 않았다($F Change = 1.03$, ns).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고립 배척이 11.1%를 설명하여 가장 유의하였고($F Change = 14.05$, $p < .001$) 모욕 배척은 3.8%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F Change = 4.93$, $p < .05$). 괴롭힘 배척의 설명력은 2.4%로 유의하지 않았다($F Change = 3.20$, ns). 즉, 괴롭힘 배척은 우울이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며 고립 배척이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유의하였다. 모욕 배척 역시 우울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그 효과의 크기가 작았다.

다음으로 세 가지 배척 중에 어떤 요인이 자기 유용성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순차적 투입을 실행한 결과, 표 6과 같았다. 사회적 배척 중에서 고립 배척이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설명력이 가장 높아 16.9%를 설명하였다($F Change = 22.77$, $p < .001$). 모욕과 괴롭힘 배척이 추가로 설명한 영향력은 각각 .000, .001로 유의하지 않았다 ($F Change = .048$, ns, $F Change = .157$, ns). 즉, 괴롭힘 배척과 모욕 배척은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고립 배척만이 친족들에 대한 자기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울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 효과 검증

앞선 상관 분석에서 사회적 배척과 자기 유용성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36의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우울과 자아존중감 역시 자기 유용성에 -.34, .36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상관 자료 및 개념적 가설에 근거하여 사회적 배척이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효과의 직접 효과 및 우울과 자아 존중감을 경유한 매개 효과를 검

표 6. 사회적 배척이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자기 유용성		
	ΔR^2	F Change	Sig
고립 배척	.169	22.77	.000***
모욕 배척	.000	.048	.826ns
괴롭힘 배척	.001	.157	.693ns

Partial=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 $p < .05$, ** $p < .01$, *** $p < .001$

증하였다. 이 때 공변량 구조 모형은 두 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모형은 사회적 배척이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배제하고 우울과 자아 존중감의 경로만을 거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완전 매개 모형이다. 두 번째 모형은 사회적 배척이 자기 유용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직접 효과 및 우울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가정하는 부분 매개 모형이다. 모형구성시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 중에 “미래, 타인과 사회에 대한 나의 기여,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각” 등을 반영하는 문항 4개는 자기 유용성이나 자아존중감과 개념적 유사한 면이 많고 상관계수도 높아 공변량의 위협성이 있었으므로 배제하였으며 우울 정서, 우울에 수반되는 정서적 문제 및 생리적, 신체적 증상 등을 반영하는 문항들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완전 매개 모형의 결과를 보면 사회적 배척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계수($Estimate = .18, \beta = .38, C.R. = 3.39, p < .001$)는 유의하였지만 우울에서 자기 유용성으로 가는 경로계수($Estimate = .16, \beta = .11, C.R. = .49, ns$)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배척에서 자아 존중감으로 가는 경로계수($Estimate = -.13, \beta = -.33, C.R. = -3.26, p < .001$)와 우울에서 자아 존중감으로 가는 경로계수($Estimate = -.58, \beta = .67, C.R. = -5.17, p < .000$), 자아 존중감에서 자기유용으로 가는 경로계수($Estimate = 1.04, \beta = .58, C.R. = 2.92, p < .01$)가 모두 유의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절대적합지수 $\chi^2 = 60.74, df = 49, p = .12$ 로 모형이 적합하다는 가정이 인정되었으며 상대적합지수 NFI(.935), IFI(.987), CFI(.986)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또한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간명성을 고려하는 NNFI와 RMSEA 역시 .978, .031로 양호

한 수준이었다. 이로 볼 때 완전 매개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으며, 사회적 배척이 우울을 경유하여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은 없었지만 자아 존중감을 매개하여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시사되었다.

두번째로, 부분 매개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배척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계수($Estimate = .18, C.R. = 3.30, p < .001$)는 유의하였지만 우울에서 자기유용으로 가는 경로계수($Estimate = -.15, C.R. = .52, ns$)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완전 매개 모형에서와 달리 사회적 배척에서 자아 존중감으로 가는 경로계수($Estimate = -.11, C.R. = -2.62, p < .01$), 우울에서 자아 존중감으로 가는 경로계수($Estimate = -.59, C.R. = -5.13, p < .001$)가 유의하였던 반면 자아존중감에서 자기유용으로 가는 경로계수($Estimate = .38, C.R. = 1.17, ns$)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배척에서 자기 유용성으로 가는 직접 효과($Estimate = -.24, C.R. = -3.07, p < .001$)는 유의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절대적합지수 $\chi^2 = 51.5, df = 48, p = .34$ 로 모형이 적합하다는 가정이 인정되었으며 상대적합지수 NFI(.945), IFI(.996), CFI(.996)는 모두 양호하였다. 간명성을 고려하는 NNFI와 RMSEA 역시 .993, .017로 적합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을 비교할 때 절대적합지수와 상대적합지수는 유사하였지만 부분 매개 모형의 간명성 지수가 매우 높아 부분 매개 모형이 완전 매개 모형에 비해 타당한 모형으로 시사되었다. 또한 부분 매개 모형에서 사회적 배척이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였지만 우울과 자아 존중감을 경유하여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간접적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 매개 모형의 결과와 각 변인의 표준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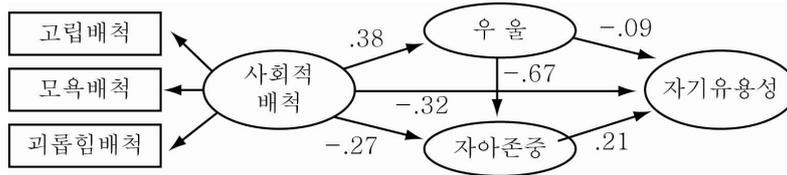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배척과 자기유용성의 부분 매개 모형

표 7. 부분 매개 모형에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

	배척/우울	우울/ 자아존중	배척/ 자아존중	우울/ 자기유용	자아존중/ 자기유용	배척/ 자기유용
전체	.377	-.674	-.526	-.239	.213	-.464
직접효과	.377	-.674	-.272	-.095	.213	-.286
간접효과	.000	.000	-.254	-.144	.000	-.148

회귀계수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나아가 부분 매개 모형에서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알아 본 결과는 표 7과 같았다. 사회적 배척이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464로 유의하였으며($p < .001$) 이 중 직접 효과는 -.286, 간접 효과는 -.148로 직접 효과에 비해 간접 효과가 적었다. 간접 효과를 알아보면 사회적 배척은 우울에 .377($p < .000$)의 효과가 있었지만 우울은 자기 유용성에 -.095의 효과만을 미쳐 유의하지 않았다($p = .602$). 우울은 또한 자아 존중감에 -.674($p < .000$)의 직접 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적 배척 역시 직접 효과 -.272, 우울을 경유한 간접 효과 -.254를 포함하여 자아 존중감에 -.526($p < .000$)의 유의한 효과가 있었지만 자아 존중감이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효과는 .213($p = .242$)에 그쳤으며 그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보고 Hamilton(1964)의 포괄적 적합도 이론 등 진화심리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사회적 배척이 유전적 유사성을 공유한 친족들에 대한 자기 유용성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 때 성인에게는 신체적, 언어적으로 상대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직접적인 방식의 배척보다는 은밀하거나 간접적인 형태의 배척, 즉 무리에서 은밀하게 배제시키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모욕을 주는 형태의 배척이 많을 것이므로 사회적 배척을 고립, 모욕, 괴롭힘 배척의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 중 어떤 유형의 배척이 자기 유용성에 손상을 더 많이 입히는지 검증하였다. 부수적으로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을 구성하여 사회적 배척이 친족들에 대한 자기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때 우울과 자아 존중감을 경유하여 미치는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배척은 우울과는 정적 상관, 자아 존중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사회적 배척이 많을수록 우울 성향이 높고 자아 존중감이 낮아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사회적 배척은 우울을 높이고 자아 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이었는데 고립 배척과 모욕 배척이 강할수록 우울감이 높았으며 괴롭힘 배척은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는 고립 배척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괴롭힘 배척은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모욕 배척은 자아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고립 배척에 비해 매우 작았다. 가설 1에서 예측한대로 전반적으로 우울이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사회적 배척의 영향력이 가장 높아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배척의 유형별로 보면 고

립 배척이 미치는 영향력이 높았으나 우울감에 대해서는 모욕 배척의 영향력도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배척이 친족들에 대한 자기 유용성 지각을 손상시키는 요인이었는 바, 가설 1과 2가 지지되었다. 특히 고립 배척이 모욕이나 괴롭힘 배척에 비해 자기 유용성의 손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회귀 분석에서 직접 상대를 괴롭히거나 모욕을 가하는 방식의 배척은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한 무리에서 정상적으로 형성, 유지되어야 할 관계나 소속감에서 고립시키고 배제하는 형태의,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의 배척이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괴롭히고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하는 직접적, 노골적인 형태의 배척보다 자신이 친족들의 생존과 번성에 유용하다는 지각을 크게 낮추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직접적인 괴롭힘이나 모욕보다 사회적 고립이 우울감을 유발하고 자아존중감을 낮추며 특히 친족들에 대한 자기 유용성을 손상시키는 것일까? 이는 첫째로, 기존의 연구자들(Baumeister & Leary, 1995; Maslow, 1968)이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수용이 그만큼 진화적으로 먼 선조시절부터 중요한 인간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였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는 독립적으로 생존하고 발달할 수 없다. 유아는 가족 속에서 태어나 부모와 주변 성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애착을 형성하고 발달해간다.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고릴라, 보노보, 침팬지 같은 영장류 역시 무리를 떠나서는 정상적으로 생존, 발달할 수 없다(Bowlby, 1969). 이 때 무리는 생존과 발달, 번식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소속집단에서 배제 당한다는 것은 자신이 생존하고 짝을 만나 번식할 수 있는 기반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특히 번식기에 들어선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집단에서 배제 당한다는 신호는 협동할 수 있는 상대나 조력자를 상실하여(짝짓기나 우수한 배우자의 획득, 혹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위나 자원을 획득, 발전시키는데 심각한 제한을 받는 셈이 된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짝짓기와 우수한 배우자 획득에 실패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으로는 자신의 번식가(reproductive value)를 낮게 지각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한 개체가 짝짓기에 실패하면 유전자를 공유한 친족 전체의 번식 성공률을 손상시키

는 것이기 때문에 친족에게 부담이 된다고 느끼거나, 적어도 친족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된다고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적 배척이란 자신이 속한 무리에서 고립, 소외당하고 이로 인해 관계와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배척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기존 연구(Baumeister & Tice, 1993; 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2)에서는 사회적 배척을 미래에 혼자가 되거나 관계에서 배제당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괴롭힘이나 모욕 배척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배척과는 다르다. 괴롭힘이나 모욕에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며 모욕감을 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계의 상실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피해자가 소수의 가해자에 의해 괴롭힘이나 모욕을 당한다고 해도 집단 대다수의 성원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상실하거나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나아가 모욕이나 괴롭힘에 따른 관계의 약화는 가해자가 비교적 명확하고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화해나 승복을 통해 비교적 관계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순수한 의미의 사회적 배척(고립)은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 내의 다수 성원들에게 당할 가능성이 높고 가해자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우며, 자신이 속한 무리의 다수 성원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속 시간이나 가해자의 비율(소수, 다수) 등을 감안한다면 소규모의 집단에서 수렴-채집 생활을 해 온 진화적 조상들에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집단내의 거의 모든 성원들과 상호작용을 못한다는 손실은 일시적으로 집단내의 일부 소수와 상호작용을 못한다는 손실에 비해 훨씬 더 크고 심각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배척의 원인을 누구(가해자, 자기)에게 귀인하는가, 즉 내부 귀인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외부 귀인이 이루어지는가도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 사회적 배척은 타인에 의해 강제되는 사건으로, 배척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이 배척당한 원인을 알고자 하는 동기가 강해지게 된다(조성숙, 최훈석, 2007). 사회적 단서나 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고 정보 처리가 깊어지며,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다시 소속될 수 있는지 자기조절 시도를 하

게 되는 것이다(Pickett, Gardner & Knowles, 2004). 이 경우에 중요한 사회적 정보처리과정 중의 하나가 피해 당사자가 그 원인이나 이유를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예컨대 피해자가 배척의 원인을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내부 귀인하고 인정할 수도 있다. 만일 자신 내부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특히 성격이나 인지적 자원과 같이 지속적이며 변화하기 힘든 특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자기 유용성이 현저히 손상될 것이다. 사회적 고립은 형태가 모호하고 따돌림의 주체가 불분명하며, 자신이 소속된 특정 집단 전체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내부의 결함으로 귀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친족들에게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지각을 손상시킬 것이다. 이와 달리 배척의 원인을 가해자나 집단, 상황적 요인 등으로 외부 귀인하거나 교정 가능하다고 지각한다면 우울감이나 불안, 분노 등의 부적 정서가 증가하더라도 자기 유용성은 손상되지 않을 수 있다. 정해진 각본에 따라 외부 귀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인이 모호해 명확한 귀인이 어려운 경우에 비해 마음 상함(hurt feeling)이 적다(Zadro, Williams, & Richardson, 2004).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체적, 언어적 괴롭힘이나 모욕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소외와 달리 대개 주체(가해자)가 분명하고, 외부 귀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문에 자신이 친족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라는 지각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귀인, 수용성, 교정 가능성과 같은 정보처리 과정이 매개 혹은 조절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과 달리 성인 집단에서는 간접적, 소외형의 배척이 대부분이며 직접적인 괴롭힘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의 영향력이 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신동엽과 박고훈(2000)의 조사를 보면 동료들이 말이나 상대를 하지 않고(66.9%), 모임에서 제외하는 것(47.6%), 업무 정보의 고의적인 차단(36.8%) 등 소외/고립형이 가장 많았고 공공연한 질책을 당하거나(27.3%), 단점이나 사생활에 대한 조롱과 욕(19.8%) 등 직접적인 괴롭힘이나 모욕은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런 이유로 대학생의 경우에도 모욕이나 괴롭힘 배척에 대한 경험이 낮아 그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 배척의 영향력은 없었지만 모욕 배척이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는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을 낮추는데도 일부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다. 모욕이나 무시, 창피는 다른 사람에게 개체의 잘못이나 단점을 지적당하고 능력이나 태도, 행동을 폄하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또한 공적 공간에서 개인은 상호존중할 의례적 의무를 갖게 되는데(Goffman, 1959) 무시나 모욕은 이를 위반하는 것이다. 모욕은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공공연히 이루어지며, 개체도 그 과정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무시나 모욕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거나 위협당하는 것이다(김현경, 2007).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심리학적으로 깊이 탐구되지 않았지만 모욕은 소속집단에서 정당한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기의 영역에 속하는 능력이나 가치, 행동이 폄하당한다고 지각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손상당하거나 우울감, 분노 등의 부적 정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인 모욕은 피해자의 보상적인 노력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 소속 집단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소외감과 분노, 우울감과 같은 부적 정서 상태를 유발하고 자아존중감을 낮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우울과 자아 존중감을 경유하여 작용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배척이 자기 유용성에 미치는 직접 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완전 매개 모형에서 자아 존중감을 거쳐 작용하는 효과가 유의하였지만 부분 매개 모형에서는 자아 존중감을 거쳐 작용하는 간접 효과가 사라졌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사회적 배척이 자기 패배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면서 기분(정서적 고통)의 매개 효과를 가정하였지만 그 효과를 지지받지 못하였는 바(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2; Williams, Cheung, & Choh, 2000),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앞의 분석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배척, 특히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손실이 한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일 수 있다. 대다수 집단성원들에게 배척을 당해 상호작용이 단절된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나 부

모가 되지 못하고,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할 것이며,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거나 부담이 되고 느끼는 것이다. 사회적 고립이 우울감을 유발하고 자아존중감을 낮추기는 하지만 자기 유용성과 독립적 혹은 병행적으로 작용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이라는 매개변인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회적 배척은 우울감(Craig, 1998), 학습된 무력감(Goetz & Dweck, 1980), 낮은 자존감(Rubin & Mills, 1988)을 유발하며, 부적 정서는 위험한 선택이나 자기 패배적인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Leith & Baumeister, 1996). 이 때 우울과 같은 부적 정서 및 낮은 자존감이 한 개인 안에 안정적으로 내재화되어 영향을 발휘하는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런 후에 우울과 낮은 자존감이 자기 유용성에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횡단적인 질문 조사로 진행되었고 이런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제공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시간적 성숙 요인을 고려한 종단적 연구나 사회적 배척을 현격하게 경험하고 우울과 자존감 상실이 현저한 집단군(외상후 장애, 우울장애 집단군 등)와 일반 통제군 등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을 괴롭힘, 모욕, 고립 배척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진화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배척, 특히 고립이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자기 기여도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괴롭힘이나 모욕 역시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소속감과 관계에 대한 욕구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혹은 표현방식이 다른 배척의 양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척의 한 범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도 따돌림, 괴롭힘, 거절, 고립, 배척 등 여러 개념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괴롭힘, 모욕, 고립, 따돌림 등과 연관된 사회적 배척을 보다 명확히 구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배척 유형과 정도를 조사하여 경험 타당도를 확보, 척도를 구성한 후 본 연구의 결과

를 반복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척이 현격한 집단군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 세 가지 배척의 정도나 빈도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점, 실험 연구 및 종단적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었으며 추후에는 이를 고려한 정밀한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 개인 내부에서 진행되는 정보처리 과정을 가설화한 후 귀인, 수용성, 교정 가능성 지각 등의 매개/조절 변인을 설정하여 심리적 경로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참 고 문 헌

- 김미례(2007). 기혼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761-777.
- 김지현, 최희철(2007). 남성 성역할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45-160.
- 김현경(2007). 공적 영역에서의 무시와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사회와 역사*, 75, 253-283.
- 김혜원, 이해경(2000). 집단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0). *심리척도 핸드북*. 서울: 학지사.
- 곽금주(2005). 직장속의 왕따. *월간넥스트*, 2005년 2월호.
- 권순달(1999). 따돌림의 심리적 구조 분석. *교육문제연구*, 12(1), 15-35.
- 모의회, 김재환(2002). 의사소통과 부부 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87-900.
- 박경규(2006). 조직내 집단 따돌림과 조직행동. *경영논총*, 16(2), 115-127.
- 박경규, 최항석, 김호연(2006). 직장내 집단따돌림(mobbing)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상논총*, 35(1), 169-193.
- 박병금(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

- 회지, 16(3), 505-522.
- 신동엽, 박고훈(2000). 직장내 구성원의 부적응현상에 대한 연구. 따돌림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13, 1-51.
- 이명옥, 하정희(2007). 자아분화와 결혼적응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19-535.
- 이중훈(1995). 한국형 자기평가 우울척도의 개발. 영남의 대학술지, 12(2), 292-305.
- 이춘재, 광금주(2000).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 이혜경, 김혜원(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이홍표, 한성열(2006).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 진화심리학적 추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3), 1-16.
- 이홍표, 김수지, 김교현(2008).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사회적, 진화적 유용성: 교재 성공 및 성적 전략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3), 645-669.
- 전영기(2000). 청소년기의 집단 따돌림 유형과 특성조사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진, 이은혜, 고윤주, 김영신(2001). 학령기 행동문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서의 또래관계. 아동학회지, 22(3), 91-106.
- 조성숙, 최훈석(2007). 사회적 배척/수용경험 및 귀인이 사회적 정보처리와 처벌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131-151.
- 최은숙(2000).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연구소, 인간이해, 21, 109-137.
- 한겨레신문(2003). 왕따 겪는 직장인, 흔들리는 직장인. 2003년 4월 3호.
- 홍영수, 전선영(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4), 125-149.
- Barchas, P. (1986). A sociophysiological orientation to small groups. In E. Lawler(Ed.), *Advances in group processes* (Vol. 3, pp. 209-246). Greenwich, CT: JAI Press.
- Baumeister, R. F., & Tice, D. M. (1993). Anxiety and social exclu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165-195.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3*, 497-529.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own, R. M., Dahlen, E., & Mills, C. (1999). Evaluation of an evolutionary model of self-perseveration and self-destruction. *Suicidal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9(1)*, 58-71.
- Buss, D., & Barnes, M. (1986). Preference in human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9-570.
- Callaghan, S., & Joshep, S. (1995). Self-concept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161-163.
- Craig, W. M. (1998). The relationship among bullying, victimization,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123-130.
- Crick, N. R., & Bigbee, M. A. (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factor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337-347.
- de Catanzaro, D. (1995). Reproductive status, family interactions, and suicidal ideation: Survey of general public and high-risk groups. *Ethology and Sociobiology, 16(5)*, 385-394.
- Dodge, K. A., Lansford, J. E., Burks, V. S., Bates, J. E., Pettit, G. S., Fontaine, R., & Price, J. M. (2003). Peer rejection and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problem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74*, 74-393.
- Dunbar, R. I. M. (1993). Coevolution of neocortical size, group size, and language in humans.

-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16, 681-735.
- Einarsen, S. (2000). Harrassment and bullying at work: A review of the scandinavian approach.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5(4), 394.
- Goetz, A. T., Shackelford, T. K., Weekes-Shackelford, V. A., Euler, H. A., Hoier, S., Schmit, D. P., & LaMunyon, C. W. (2005). Mate retention, semen displacement, and human sperm competitio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actics to prevent and correct female infide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8, 749-763.
- Goffman, E. (1959). *Presentation of the Self of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Anchor.
- Greenberg, L. S., & Paivio, S. C. (1997). *Working with emotions in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Hamilton, W. D. (1964). The genetic evolution of social behavior.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7, 1-16.
- Hawker, D. S., & Boulton, M. J. (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4), 441-455.
- Herman, K. R., & Betz, N. E. (2004). Path models of the relationships of instrumentality and expressiveness to social self-efficacy, shyness, and depressive symptoms. *Sex roles*, 51(2), 55-66.
- Keashley, L. (1998). Emotional abuse in workplace: Conceptual and empirical issues. *Journal of Emotional Abuse*, 1(1), 85-117.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7-5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dolt, M., Lalumiere, M., & Quinsey, Y. (1995). Sex differences in intra-sex variations in human mating tactics: An evolutionary approach. *Ethology and Sociobiology*, 16, 3-23.
- Leary, M. R., Tambe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18-530.
- Leith, K. P., & Baumeister, R. F. (1996). Why do bad moods increase self-defeating behavior? Emotion, risk taking, and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250-1267.
- Levi-Strauss, C. (1958). *Anthropologie structurale*. 김진욱 역(1987). [구조 인류학]. 서울: 종로서적.
- Lu, L., & Wu, H. (1998). Gender-role traits and depression in college men: Self-esteem as a mediator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1, 95-107.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Van Nostrand.
- Mikkelsen, E. G., & Einarsen, S. (2002). Basic assumptions and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among victims of bullying at work.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1, 87-111.
- Olweus, D. (1984). Aggressors and victim: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ualts(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Chichester: Jon Wiley.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Psychology in the School*, 40(6), 699-700.
- O' Moore, M. (2000). *Summary report on the national survey on workplace bullying in Ireland*. The Anti-Bulling National Centre. Dublin: Trinity College.
- Paquette, J. A., & Underwood, M. K. (1999). Gender differences i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of peer victimization: Social and physical agg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45(2),

- 242-266.
- Peplau, L. A., & Perman, D. (1982).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Wiley.
- Pickett, C. L., Garder, W. L., & Knowles, M. (2004). Getting a cue: The need to belong and enhanced sensitivity to social c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1095-1107.
- Rice, K. G., Ashby, J. S., & Slaney, R. B. (1998).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structure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304-314.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2), 310-32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 K. H., & Mills, R. L. (1988). The many faces of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16-924.
- Swami, V., Miller, R., Furnham, A., Penke, L., & Tovee, M. J. (2008). The influence of men's of men's sexual strategies on perceptions of women's bodily attractiveness, health and ferti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98-107.
- Tram, J. M., & Cole, D. A. (2000).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the relation between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Mediator or Modulat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753-760.
- Twenge, J.M., Baumeister, R.F., Tice, D.M., & Stucke, T.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058-1069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2). Social exclusion causes self-defe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606-615.
- Wilkinson, R. B. (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6), 479-493.
- Williams, K. D., Cheung, C. K.,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748-762.
- Zadro, L., Williams, K. D., & Richardson, R. (2004). How long can you go? Ostracism by a computer is sufficient to lower self-reported levels of belong, control, self-esteem, and meaningful exist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560-567.
- Zung, W. W. K. (1965).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 General Psychiatry, 12*, 63-70.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the Perceived Self-Utility toward Kin

Ki-Jun Kwon Heung-Pyo Lee

Daegu Cyber University

The need to belong and social acceptance is the fundamental human need. The purpose of this studies aims at verifying whether social exclusion has a negative effect on perception of self-utility toward prosperity of kin who hold a genetic similitude in common. Social exclusion was divided into three sub-categories of isolation, contempt, and bullying exclusion. Expecially, social isolation would obstruct cooperation with peer, survival and reproduction of individual in group. So, it was assumed that isolation exclusion would be have a severe and stronger negative affect on self-utility toward kin than contempt and bullying exclusion. According to our research results, social exclu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ve mood, low self-esteem, and self-utility toward kin. Especially, Self-utility toward kin was most severe affected by isolation exclusion compared with contempt and bully exclusion. Also, using full mediational model and partial mediational model, mediational effect of depressive mood and self-esteem was investigated, but indirect effect through depressive mood and self-esteem was not significant, only direct effect of social exclusion on self-utility toward kin was significant. Lastly, from the evolutionary and sociopsychological view, this study's results, implications, limitations were interpreted and discussed.

Keywords : social exclusion, self-utility toward kin, depressive mood, self esteem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4월 14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11월 20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11월 24일